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net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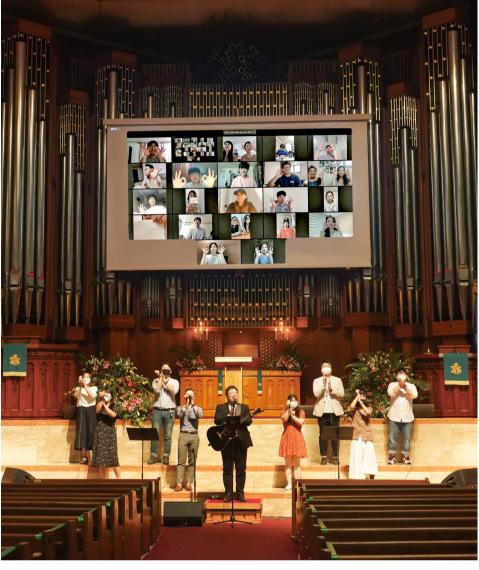




















줌(ZOOM)으로 드리는 예배와 속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청년부의 도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COVID-19가 재확산 됨 에 따라 개인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를 실현하고자 줌(화상)을 활용하여 드리는 예 배에 도전했습니다. 청년부는 줌으로 속회를 진행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한 공동체로 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담 임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2주간 시범적으로 '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공동체 예배 가치를 지켜

청년부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 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했던 것과 같이 준비된 모습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 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지 속되었을 때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 생하였습니다.

8월 23일,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하여, 다시 비대면으로 예 배와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하였 습니다. 청년부는 지난번에 발견한 문제점들 을 보완하기 위하여 8월 30일부터 '줌으로 드 리는 예배'를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부 임원들이 시범적으로 참여하였고 점차 그 대 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박현서 교구장은 "혼자 참여할 때보 다 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좋았습 니다"라고 전했고, 김연선 지구장은 "다함께 예배드린다고 느껴져서 좋았습니다"라고 알 렸습니다. 황예찬 속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한계점도 발 견하였습니다. 인터넷 환경에 따라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줌 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에, 예배 화면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함께 나오는 것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피드백도 있었습 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주 차부터 는 2개의 기기를 활용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앞으로 개인 예배를 넘어서 '공동체 예배'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하여 줌으로 참여하는 예배를 확 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속회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

청년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다양한 '어플리 케이션'을 활용하여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 그룹통화(음성), 줌(화상) 등 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줌으로 속회를 진행 한 경우 현장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나눔과 교제가 가능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 습니다. 점차 줌으로 속회를 드리는 곳이 중 가하여, 현재 청년부 속회의 약 45%가 줌으 로 속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남효 속장은 "염려했던 것보다 거부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줌으로 속회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권소리 속장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온라인 으로라도 속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줌을 통해 속원들이 나눠주는 나눔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 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청년부는 비대면 상황에서 줌을 활용하여 예배와 속회를 드림으로 교회의 중요한 가치 인 '공동체성'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또한 청 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교 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 지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고, 더욱 부흥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광림의 강단

광림 스토리

하나님을 만나다 속회 지도자교육, 삼분속공

다음세대 맞춤형 새가족 심방교육

특집 국제광림비전랜드-1 복음 문화와 만나다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참된 평안과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11장 28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로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성공 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현대인들은 생존 과 성공을 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힘을 쏟아냅니다. 그 러나 이로 인해 강한 중압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쉽게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아주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또한, 현실을 도피하려는 행동, 폭력성, 불안과 걱 정, 좌절감, 갈등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상태 와 감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과 생명을 뒤흔들고 좀먹습니 다. 현대인들은 불안정하고 각박하고 분주한 생활 속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 없는 삶을 살 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람이라면 누 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불안과 좌절, 염 려와 갈등보다 평안과 안식, 행복을 추구하 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 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 나아갈 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 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까요? 본문 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된 초청에 응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에 해 당하는 헬라어 코피아오($\kappa o\pi \iota \alpha \omega$)는 '노동 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게 일 하여 피곤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 다. 또한, '무거운 짐'에 해당하는 포르티조 $(\Phi \circ \rho \tau i \zeta \omega)$ 는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짐과 고통을 의 미합니다. 끝없는 경쟁, 과중한 업무, 스트레 스,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을 잘 대변하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은 계속 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웁니다. 세 상이 요구하는 틀에 자꾸 우리를 끼워 맞추 라고 합니다. 필요와 요청에 따라 우리는 반 응해야 하고 때로는 순응해야 한다고 말합 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과 평안, 행복을 빼앗으면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 게 강요를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내게 로 오라"(Come to me)고 말씀하시며 부드럽 게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짐도 지 우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전부 수용해주시겠다는 의미 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와서 참여하 고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 록 세상의 모습이 변하지는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어느 것도 나를 얽매지 못



마태복음 11장 25~30절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 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라 하시니라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 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 안을 얻게 됩니다. 다만 그 복된 초청에 응하 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 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와 안식을 얻으며 세상을 다시 이겨낼 능력도 함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9절에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란 무엇입니까? 보통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 소나 나귀의 목에 얹는 막대기를 의미합니 다. 멍에를 멘 소나 나귀에게는 자유가 없습 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 멍에 는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도구 를 의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멍에 는 억압, 복종, 강제 노동 등을 상징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은 우리를 억압하고 복종케 하고 강제적으로 일하게 합 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 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떠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30절)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 (29절)에 기초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어떠한 강요나 억압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메야하는 주님의 멍 에와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단순하게도 우 리 역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만 을 품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메 야할 멍에와 짐입니다. 주님은 그 외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 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그 안에

참된 위로와 행복,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미리 누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참된 평안 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 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경우 "나 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 다"(시 55:18)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대적들 과 전쟁을 마주해야 했던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 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때 위로와 평 안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것, 값없이 주 는 것을 뜻합니다. 받는 대상에게 어떤 자격 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푸는 호의와 친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땅히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적 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셨 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베 풀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죄와 연약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인정받게 됩니 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수용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이웃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웃과 환경의 조건, 여건 등을 따지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 니다. 한마디로 넓은 마음과 사랑의 소유자 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발견 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랍고도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 시길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전화 I 02-2056-5771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 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림장학금〉 미래의 인재들에게 장학금 수여

9월 6일, 32명의 학생들에게 5,650만원 장학금 전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미래의 인 재들을 지원하는 2020년 하반기 광림장학 생이 선발되었다. 총 57명의 지원 학생 중에 서 장학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32명의 장학생 이 최종 선발되었다. 성적우수 장학생(대학 생) 5명, 봉사우수 장학생(대학생) 13명, 감리 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대학생) 11명, 성적우 수 장학생(대학원생 및 유학생) 3명에게 총 5,6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광림장학금〉은 9월 6일 저녁예배에 축하 예배와 수여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 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 없이 선발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위원회(위원 장 이동호 장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된 경제상황 등 어려운 점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자 애쓰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적 사 명을 다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믿음의 인재 양성 위해 선발 범위 확대

광림장학위원회는 1998년 15명의 장학위원들 이 자발적으로 헌금한 700만원으로 장학사 업을 시작해 매년 1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2년간 지급한 금액이

광림장학금은 B학점 이상의 성적 우수학생 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급하고 있 다. 성적우수 대학생은 광림교회 출석 가정 의 자녀로 성적이 우수하고 믿음 안에서 교 회에 봉사하는 학생으로 경제적 지원이 보 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봉사우수 대학생은 교회 각 기관의 추 천을 통해 교회에 봉사 헌신하는 성적이 우 수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자립이 어려운 상태의 목회 자를 돕기 위해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믿음 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아직 소수이지만 유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믿음의 인재 양성을 위해 선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적우수 장학생(대학원생)으로 선발된 김규 리 학생은 "이번에 광림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 하고 발전해서 교회와 사회에 도움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되길 원합니다"라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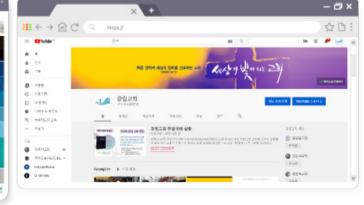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26억에 이른다.



온라인으로 사회적 거리 좁히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광림방송〉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서 예배 를 드리는 것이 바이러스 온상이 되는 듯 인식 되는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기독교인들에게 비대면 예 배, 온라인예배를 강요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재 수도권 방역조치 2.5단계 격상으로 1주 간 더 연장됨에 따라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속에서 교회 기관 중 〈광림방송〉은 가장 바 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림교회는 2008년부터 온라인예배를 시작 하였다. 이때는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오기 힘든 분들과 외국에서 영적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분들을 위해 시작된 온라인예배였다. 2015년 본당 방송장비를 Full HD로 교체하며 이때부터 Full HD 라이브방송을 시작하였

2019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성도들이 온 라인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맞아 광림방송은 여러가지 영성 프로그램을 제작 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성도들의 영성을 회복시키 는데 매진하고 있다.

예배와 영성회복 프로그램 방송 지원

우선 온라인예배로는 유튜브 채널과 비메오, 광림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1~5부 주일대 예배, 주일저녁예배, 수요치유의 신학, 금요은 혜의 밤, 매일 새벽기도 그리고 교회학교, 청 년부, 사랑부와 함께 나이에 맞는 온라인예배 를 송출하고 있다. 특히 5부예배는 청년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예배를 시작하였 고, 사랑부에서도 학생들의 현장예배 참여 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적은숫자이지만 화상 회의를 통한 온라인예배를 시작하였다.

또한 광림방송에서는 영성회복 프로그램으 로 주일설교 요약, 온타임 묵상, 츄즈라이프, 어번던트라이프, 온라인 속회를 제작하고 있 으며 교회학교의 위딤, 찬양, 말씀놀이터, 청 년부의 LFC Creative Lab, 목요쉐키나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특별히 9월부터 속회 지도자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코너 속의 코너 '3분 속공'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광림방송은 광림남교회, 광 림서교회, 광림북교회에 기술지원을 하여 지 교회에서도 유튜브 실시간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으며, 광림교회에 부임했 던 여러 목사님들의 교회에도 온라인예배 자 문을 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본당에서 지교회까지 그리고 해 외의 광림교회, 선교센터가 있는 모스크바, 뉴질랜드, 베트남에서도 온라인예배를 진행 하며 교인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온라인을 통 해 최대한 좁히며 주님께 한걸음 더 다가가 고 있다.

★ 변영혜 기자 yhbyun1010@naver.com

포토 뉴스



속회지도자교육 선물추첨 51교구 14속이 첫번째로 당첨되었다.



속회지도자교육 속회지도자교육 바로가기 QR코드



온타임 온타임 바로가기 QR코드



주일 말씀요약 주일 말씀요약 바로가기 QR코드

담임목사 동정



9/6 주일예배 9/13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기도가 답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 갈 수 없느니라"(막 9:29)

1973년 어느 가을날, 공사용 덤프트럭 여 러 대가 줄지어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 자기 한 대가 "끼~익!" 브레이크 소리를 내 면서 급정거를 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 기 시작했다. "트럭 밑에 아이가 깔렸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니 죽은 거 아 냐?" 몇 분이 흘렀을까? 트럭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핸들을 붙 잡고 벌벌 떨고 있던 트럭 기사는 아이 울 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차 문을 열고 내렸 다. 트럭 기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꺼내자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다. "너 OOO댁 아들 희갑이 아니냐?" 한바탕 소 동이 벌어지고 난 뒤 병원에 갔다. 진찰 결 과 몸 일부 타박상 외에 멀쩡했다.

이 일로 나는 일약 동네 스타(?)가 됐다. 내 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OO김씨 집성 촌으로 각종 우상숭배로 무속신앙이 드 센 곳이었다. 그런데 이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봐? 희갑이가 트럭 밑에 깔렸는데 안 다치 고 멀쩡하대!" "나도 더 늦기 전에 예수 믿 어야겠어!" 이 일이 있은 후 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셨다. "희갑아, 너 는 지금부터 니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살려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아야한다." 그 뒤로 소년 희갑이는 무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꼭 하굣길에 책가방을 맨 채로 교회에 올라가 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 그러면 하나님 께서 항상 들어주셨다.

이랬던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찿아 왔다. 대학에 진학해서 서울에 올라오니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졌다. 한 주 두 주 곶감 빼 먹듯이 빠지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교 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 군 복무 시절에 도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직장에 다닐 때 도 똑 같았다. 여전히 소속감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겉돌았다. 여러 번 인생의 위 기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다 아내 박 권사를 만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이었기에 박 권사를 따라 광림교회에 출석한 지 벌 써 20년이 지났다. 담임목사님의 귀한 말 씀으로 양육되고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신앙생활 을 하게 되니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생기 고 다시 소년 시절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 었다.

요즘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신앙의 위기가 찿아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 린다. "하나님 아버지! 소년 채희갑의 뜨겁 고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 채희갑 권사(남선교총연합회 국내본부장)

속장님들, 〈삼분 속공〉 활용하세요!

속회 지도자 교육



속장들과 만들어가는 시간

속장들을 위한 〈속회 지도자 교육〉이 완전 히 틀을 바꿨다.

9월 3일(목) 사회봉사관 5층, 파운드리 채플 에서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전해진 속회 지도자 교육은 10분 동안 4명의 목회자들이 속장들을 위해 만든 시간이다. 속회 인도를 위한 〈삼분 속공〉 시간은 해당 공과의 핵심 적인 말씀을 3분 안에 요약해 전하고, 나머 지 시간은 세 명의 목회자들과 속회 인도하 는 법과 적용부분을 함께하며, 성도들이 교 구 전도사나 목회 연구원으로 보낸 질문사 항에 대한 답변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목회선교지원실 권순정 목사는 "속회는 가까 운 성도들이 영육간의 도움을 주며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다. 웨슬리 목사님도 '~함께' 라 는 것을 강조하셨다. 교회의 생명력은 함께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코

로나 이전부터 2~3 가정이 모이는 소그룹 '하 우스 처치'를 권장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가족 같은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끌고 돌보아 주면 신앙을 성장 시킬 수 있다. 속회가 신앙 성장과 영적 회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했다.

9월 10일 두 번째 영상은 광림수도원 본당에 서 진행했다.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함께 진행 하는 유제석 목사는 "교회가 준비한 온라인 콘텐츠들 중 이번 속회 지도자 교육의 핵심 은 '참여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속회 현장 방문, 각종 인터뷰, 교회 부속기관 방문 등을 통해 참여의 장을 넓히고, 속회 인도에 어려 움을 겪으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3분 속공'이 라는 이름으로 공과의 핵심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공과는 광림 수도원을 방문해 핵심 주제인 '빛'을 다 루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과 믿



음생활의 어려움 속에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함 으로 매 공과를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 속 이어질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재미와 의미 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더 준비 하겠습 니다"라고 했다.

이번 속회 지도자 교육에서는 15개 선교구 중 한 속에게 선물을 주는 '기프트 속회' 코너를 만들었다. 첫번째로 51교구 14속이 당첨되어 기쁨의 찬양 5집을 선물 받았다.

또 기존의 광림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속회예 배 실황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간 동 안 속회 공과 책으로 진행한다. 이 영상은 집 에서 혼자 속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 한 것이다.

>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위로와 새 힘 받아"

(7-3 루디아 여선교회)



코로나의 위협이 일상을 모조리 바꾸고 예배 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듯 공격을 받고 있는 요즈음 매월 빠짐없이 모여서 예배드리 는 선교회가 있다.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 등 동대문 지역의 7-3 루디아 선교회이다. 선교회원 6명 중에서 3명 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모이고 있다.

직장일로 힘들고 바쁘지만 열심을 다해 선교 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피곤하 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찾게 된다고 한다. "힘든 시기이지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이는게 은혜입니 다. 거리두기를 생활화 해야 하는 시기에 결 코 혼자가 아니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만 나 기도할 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받습니다" 라고 조규행 권사는 말했다.

7-3 루디아 회장 박사님 권사는 "저희는 예전 하던대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 회를 못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 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나라와 교회와 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매달 회원들한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참 석을 권면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협조가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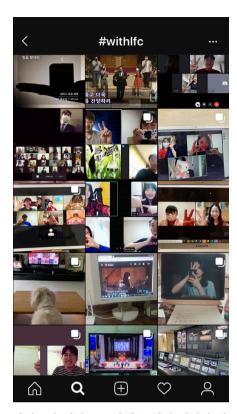
면 불가능해요. 회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 석해주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 사드립니다. 5월까지는 매월 가정에서 모였는 데 6월부터는 매월 넷째주 3부예배 후 나사 렛성전 소그룹실에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8 월말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 교회도 가 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아직 못 모였지만 성전예배가 시작되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평순 집사는 "저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매 달 모이고 있어요. 매달 선교회 날이 기다려 질 정도로 만나면 행복합니다. 박사님 선교 회장님이 항상 전화로 연락주시고 열정적으 로 선교회 식구들을 챙기는 모습에 은혜 받 습니다"라고 말했다.

7-3루디아 회원들은 선교회가 끝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교회비를 모아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감 사하며 다음 선교회모임을 기대하며 기다리 고 있다.

'퀴즈 카페'#해시태그 이벤트로 소통합니다

〈LFC 온라인 어셈블〉



광림교회 청년부는 방역을 위해 실시된 정부시책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와 속회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예배 참여도를 높이고, 청년부에서 진행했던 온전한 예배자 캠페인 1620을 온라인으로도 이어가고자 'LFC 온라인 어셈블'라이브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어셈블은 매 주일마다 'YouTube 광림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오후 4 시,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8월 23일 주일 진행된 온라인 어셈블 1회차 방송에서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을 소개하 는 시간과 예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역사를 모아 놓은 사 회봉사관 5층 역사관을 소개했고, 또 청년부 예배 주보를 같이 보면서 예배를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습니다. 첫 주 방송에 참여한 정진 우 형제는, '진짜 라디오에 참여하는 것만 같 았다. 설렘과 긴장 그 사이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와 생각들이 정말 좋았다. 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2주차 방송에서는 '퀴즈 카페라 는 이름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성경과 역사 인물, 광림교회을 주제로 한 퀴즈를 풀어가며 청년들과 소통했습니다. 참여한 최혜진 교구 장은 "2주 동안 참여해본 결과 채팅창을 통해 못 만나던 청년들을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가웠 고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도사님들을 보 게 되니 반가웠다. 더 많은 청년들이 활발하 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알렸습니다.

주일 저녁 9시 #해시태그 이벤트 방송은 온라 인으로 드린 예배와 속회에 대한 후기를 바탕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 교역자들은 라 이브 방송에 참여한 청년들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글들을 함께 확인하면서 소통했습니 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withLFC로 게시 된글을 올린 청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 달했습니다. 참여했던 김남주 속장은 "이벤트 가 정말 재미있었고, 소통하는 즐거움이 들어 서 좋았습니다. 더 많은 속원들이 참여하게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으로 인해 주 안에서 함께 웃음을 나누고 즐겁게 교제했던 시간들이 줄어져 가는 이 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송들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컨텐츠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새가족 교육〉 1:1 맞춤형 교육으로 찾아갑니다!



전도를 받거나 자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출발 점이다.

새가족위원회(위원장 한상국 장로)는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 원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 록 따뜻하게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면 먼저 예배를 드 린 후 성도들의 환영과 새가족위원들의 안내 로 새가족실에서 교회소개와 영접기도를 받 으며 광림교인으로 등록이 된다. 또한 주일 마다 교육을 통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안 내 받고 있다.

새가족 양육, 친밀한 관계 맺어 교회정착 도와 새가족 교육을 받고자 하나 교회와 집의 거 리가 멀거나 직장,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인 해 주일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성도들을 위 한 새로운 교육 방안이 마련되었다.

교육 중심의 봉사로 섬김을 다하는 새가족위 원회는 주일 교육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 아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해 어렵게 교회에 나온 새가족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 지 않도록 돕고 있다. 1:1 맞춤형 새가족 심방 교육은 9월부터 3개의 선교구에서 먼저 시범 적으로 운영되고 10월부터는 모든 선교구에 서 운영된다.

새가족 심방교육 운영

1단계로 첫 4주간 선교구 목사와 교구별로 선발된 새가족 양육위원이 새가족을 만나 광 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인 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2단계 4주 동안은 새생명반 교육으로 하나님 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독교 기본 교리교육 을 통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돕는다. 기존의 교육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영적 원리)를 먼저 배웠지만 새로운 교육은 먼저 새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이를 바탕으로 교리와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

주일에 열리는 새기쁨, 새생명반 새가족 교육 도 새롭게 개편되어 담당 강사제로 운영하며 질의 응답 중심의 멘토링 맞춤수업으로 새가 족이 교회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 아간다.

한상국 장로는 "새가족위원들을 위한 세미나와 기도회, 코칭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든든한 새가족위원들이 세워져 교회에나온 새가족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신앙 간증

매주 예배를 드릴수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4교구 조성민 속장입니다.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제가 광림교회에등록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합니다.

2008년 20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주일마다 대전에 내려가 예배를 드리던 중 학교 동기들의 권유로 이곳, 저곳 교회를 돌아다니며 정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뒤 전공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생활비와 기타 목적으로 알바를 시작했고 첫 직장은 백화점 서비스직이었습니다. 서비스직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주일에도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정착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다녔었던 교회 담임목사님께선 10대 와 20대 초반에 열심이었던 청년들이 서울 로 간 뒤 다른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주 님 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 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상황 속에서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주일예배를 참석하지 못해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 니다. 그렇게 9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한 청 년의 권유로 2018년 광림교회에 처음 오 게 되었고 예배만 드리는 상황에 마음을 주시고 다음 해인 19년에 등록을 하였습 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탕 자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도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나이여 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또다시 세상으 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 섰지만, 저의 걱정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속회를 통해 조금씩 굳어있던 마음엔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작년 국내선교를 통해 청년부에 녹아들이게 하셨습니다. 많은 청 년들이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서 너무 편하 게 사역을 하고 적응도 잘하게 되어 더 이 상 떠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단단히 붙 잡게 되었습니다.

매주 본당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기도는 "이번 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나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기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 조성민 속장 (청년부)

하나님의 비전 품은 다음 세대의 영적 허브 국제광림비전랜드 (1)

서울에서 50분을 달려 도착한 국제광림비전랜드. 진입로부터 늘어 선 메타세쿼이아 숲길엔 어느새 가을의 정취가 묻어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어, 여느 때와 같은 아이들 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성이 들리지 않아 더욱 그리워진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산 자락에 위치한 국제광림비전랜드 는 2001년 '광림비전랜드'로 시작되어, 2008년 12월 국제적 시설로 확장하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국제광림비전랜드는 청소년들의 교 육과 체력, 영성 훈련을 통해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품고 지어졌다. 세계적인 규모의 사계절 썰매장과 축구장, 농구장, 야외 수영장을 비롯하여 1천 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한 콘도식 숙 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2010년 7월 아시아 최초로 '국제감리교 세계청소년수련대회'를 개최해 46개국 600여명의 세계 청소년들과 광림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했으며, 대회 이 후 매일 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구암산 자락을 따라 조성된 약 2km에 달하는 '부활의 동산'에는 14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해 순례길을 걸으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 순례길 끝에 마련된 최후의 만찬상에서는 직접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우채플을 650석 규모로 중축했다. 현재 국제광림비전랜드는 부분적으로 개보수 중이며 시설물들과 이용방법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 🕕 두란노 하우스
- 2 로고스 콘도
- ③ 실로암 콘도
- 4 서우채플
- 5 어린이 수영장
- 6 사워실 · 탈의실
- 🥖 성인용 수영장
- 8 사워실·탈의실
- 주차장
- 🕕 축구장

- 🕕 풋살경기장
- 🕧 농구장
- (B) 족구장
- 🕧 오토캠핑장
- 15 캠프파이어장
- 16 사계절 썰매장
- 1 부활의 동산 입구 18 극기훈련장
- ₩ 정문





서우 채플 650석의 대예배실과 소예배실, 개인예배실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



특집

🕧 🗜 **활의 동산** 14개의 기도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를 순례하며 말씀을 묵상한다.



어린이 수영장 게임풀, 아동풀, 성인풀로 나눠진 수영장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다.



⑫ 농구장 150평 규모의 2코트 야외농구장으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이다.



🔞 **극기훈련장** 유격훈련 시설을 산중턱 곳곳 🌃 **사계절 썰매장** 시원한 물줄기와 하안눈을 가 에 설치해 체력을 단련시킨다.



르며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 두란노 하우스 🛮 본관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교육실, 세미나실, 콘도식 숙박시설, 250명이 함께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 축구장 900평 규모의 국제규격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단체행사와 ● 풋살경기장 국제공인규격의 인조잔디구장으로 어린이에서 성인 축제 등을 치를 수 있다.



까지 가장 즐겨 이용하는 시설이다.

기대에 부응하는 삶

- 목회현장 -



안계현 목사 (5선교구)

얼마 전에 심방을 하던 중에 카페를 하시 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를 나누다 보니 카페의 분위기가 많이 바 뀐 듯하여 공간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 이 섞인 말투로 본의 아니게 인테리어를 두 차례에 걸쳐하게 되었다고 말하시는 겁 니다. 이전에 인테리어를 하고 얼마 안돼 서 누군가가 카페 한쪽에 공간이 불법으 로 사용되었다며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리모델링을 한 상태라 또 다 시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많이 불편하셨 고, 남들도 이 정도의 공간을 창조하는 것 은 용인하고 넘어가기에 크게 생각을 안했 는데 이런 불공평한 처벌이 주어지자 화가 났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잠 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생각해보 니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 것 같아 원망이 되고, 하나님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 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권사님 스스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 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자신이고, 남들이 다 하는 잘못이니 괜찮다고 생각한 자신 의 판단도 실수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 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일 년에 몇 번, 약간 의 벌금을 내면 되는 사소한 편법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모 든 것에 법적으로 잘못이 없이, 스스로의 양심에도 떳떳하게 공사를 마치고 나자 놀 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에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동네 의 명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게 됩니다. 모두가 저지르는 잘못은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 다. 문화적 죄악은 용인된다 판단하며 누 리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 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세상은 점 점 더 많은 죄악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른 사람들도 그러하니 괜찮다는 합리성으 로 접근하게 합니다. 마치 먹음직하고 보 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 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주 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온전한 가치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지어다"(벧전 1:13)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10 Cand the talke-malters of the

people went out, and their officers, and

they spake to the people, saying, Thus

saith Pharaoh, I will not give you

11 Goeye, get you straw where you

can find it: yet not ought of your worke

12 So the people were frattered a broad throughout at the land of Egypt, to gather stubble in stead of straw.

13 And the talke-mallers halled them, faying: Fulfillyour workes, your t dayly talkes, as when there w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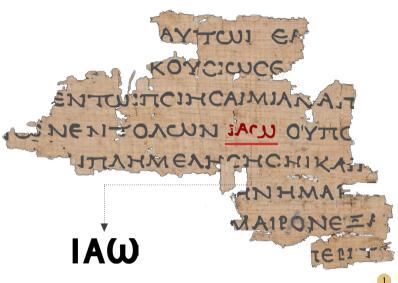
traw.
14 And the officers of the children of Ifrael, which Pharaohstalk-malters had fet over them, were beaten, and become

manded, wherefore have yenot fulfil

led your talke, in making bricke, both

thall be diminished.

☑ 그리스어 레위기, 하나님의 이름(DSS 4Q120-4QpapLXXLevb)



▲ 쿰란 4번동굴에서 발굴된 그리스어 번역 레위기 4장 26~28절 (DSS 4Q120-4QpapLXXLevb)

러내신 이후에 한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

나님의 이름 הוהו (요드-헤이-바브-헤

이) 는 모세 이후 몇 백년 뒤에 결국 아무

도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이름이 되어버

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은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히. 고 하쉠). 또는

"주님" (히. ינדא 아도나이)이라고 부릅

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니다.

"the Lord" 라고 번역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הוהו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아마 우 리 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라고 번역한 것이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1 과감하게(?) 부르는 것은 초기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듯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기록합니 합니다. 1611년 이래로 영어 성경의 표준 다 (Tetragrammaton). 히브리어 성경 뿐 이 된 흠정역 (King Jame Version, KJV)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 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הוהי 라고 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출 소개합니다 (참조. 메사 석비). 영어로는 6:3), 그 이름 יהוה Iehovah(Jehovah, YHWH 라고 쓰지요. 그런데 영어 철자 흠정역이 개정되면서 Jehovah로 영어식 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네개의 글자에 표기가 바뀜)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는 모음이 없습니다. 굳이 우리 식으로 빗 흠정역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번역한 미 대어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국표준역 (American Standard Version, 을 "ㄷㅎㄴㅁㄴㄱㄱ"이라고 써놓은 것과 마 ASV)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가지인 셈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 Jehovah 라고 번역했거든요. 우리나라로 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 성경이 전래될 때, 아마 영미권 선교사들 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 을 통해서 그들이 사용하던 성경책의 하 는 원래부터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은 나님 이름 Jehovah 를 그대로 음역해서 관습처럼 부모의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여호와"로 표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영어 성경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 표기 전통은 곧 매 은 어떻게 유대인들도 알지 못한 'הוה' 우 난처한 경우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의 모음 음가를 알았을까?" 이것은 매우 공동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너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도 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올리 나이' (הוהי, ADONAI)의 모음을 떼어 는 것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산에 다가 그대로 히브리어 (YAHOWAH)에 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드 적용해서 발음한 것입니다 (참조. 히브리

이 가능함).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를 어떻 게 읽어야할 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히브리

어 '요드' I 는 영어로 Y, I 또는 I 로 환원

어와 고대 셈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고고학 발굴의 도움을 얻었 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에 위치한 고대 에블라 (Ebla, Tel-Mardikh)에서 1974-1976년 사이에 8,000여개의 토판들이 대 규모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판들은 대 략 2,500-2,250 BCE 사이에 기록된 것 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토판들에 새겨진 신들의 이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이름 יהוה를 고대 서아시아식으로 읽 을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신의 이름이 쓰여진 에블라 토판의 쐐기 문자 를 읽으면 '이아베일루' (la-á-ve-ilu, la-veilu) 또는 '이아우움일루' (la-ú-um-ilu) 라 고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발음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웨'라고 읽을 수 있 는 또 다른 증거는 대표적으로 두 개를 더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18 왕 조 (약 1550-1295 BCE)부터 지중해 동 편 이스르엘 골짜기-아쉬켈론-시나이 반 도 지역에 이르는 지중해 동쪽 해변가에 살았던 샤수 (Shasu)에 대한 아멘호텝 3 세 Amenhotep III (기원전 14세기)와 람 세스 2세 Ramesses II (기원전 13세기)의 기록에서 샤수들이 살던 땅 (가나안)을 가리켜, "야오(를 섬기는) 샤수의 땅" (ta Shasww yhwaw) 이라고 부른다는 것입

HOVAH 14 The genealogie of Reuben, 15 of Simeon, 16 of Leur, of whom came Moses and Aaron.

CHAP. VI.

God renueth his promise by his Name I E-

hen the Lord faid but to Poles, Pow that thou see what I will doe to Pharaoh: for with a firong hand thall hee let them goe, and with a firong hand hall he direction.

2 And God spake buto Poles, and said buto him, I am the LORD.
3 And I appeared buto Abraham, buto I sac, and bunos Jacob, by the Name of God Almighty, but by my name IEHOVAH was I not knowen to them.

니다. 또 다른 증거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

을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사본들입

니다. 기원후 3세기 이후에 기록된 그리

스어 구약성경에서는 יהוה 나올 때마

다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기독교

의 교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쿠

리오스'($\chi \dot{\nu} \rho \iota o \varsigma$, '주님')으로 번역했지만,

Jehovah ∢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원 이전에 번역된 그리스어 구약성경 (DSS 4Q120-4QpapLXXLevb)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어 알파벳 IAW (YAW, '이아오/야오')로 바꾸어 쓴 것입 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아오/야오'와 비슷한 발음의 '야웨'가 하나님의 이름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에 대해서는 정답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 습니다. 사진설명 레위기 4장 26~28절

- 1) 쿰란 4번동굴에서 발굴된 그리스어 번역
- 2 1611년에 출판된 흠정역 (King James) Version) 영어 번역 성경
-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다. 그래서 히브 리어 알파벳 "요드-헤이-바브-헤이"로 하나님 의 이름을 썼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이 거 룩한 네 글자를 읽지 않아서 아무도 이 이름 을 어떻게 읽는 지를 알지 못한다.
- 4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하 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서 "요드-헤이-바브-헤이"가 나올 때마다 "주님"(아도나이) 이라고 읽었다. 빨간색 점들이 히브리어 모음
- 일군의 성서학자들은 "아도나이"의 모음 음가 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드-헤이-바브-헤이"에 붙인 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예호바) 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